닻 올린 '백년가게', 기관간 줄다리기로 시작부터 '삐끗'

소진공 16곳 첫 선정 후 언론 배포
중기부차원서 보강해 재홍보할 듯
'정책홍보' 놓고 기관간 대립 '눈살'

〈2018년 백년가게 선정 현황〉 /자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구분		상호명	위치	주요사업	업력	구분		상호명	위치	주요사업	업력
1	음식업	늘채움	전북 전주	정식, 생선구이 등	33	9	도소매	제일스포츠	전북 정읍	운동용품 등	31
2	음식업	만석장	서울 은평구	두부요리, 쌈밥	36	10	음식업	진미양념통닭	대구 달서구	치킨	32
3	음식업	삼거리 먼지막 순대국	서울 영등포구	순대국	41	11	도소매	(주)국제의료기	강원 원주시	의료소모품, 의료기기 도소매	30
4	음식업	선천집	서울 종로구	한정식	47	12	도소매	탑외국어사	전북 전주	서적, 교구, 교육	30
5	음식업	스미센	대구 동구	민물장어구이, 초밥	34	13	음식업	학암식당	충남 태안	게국지, 간장게장	39
6	음식업	을지OB베어	서울 중구	노가리, OB생맥주	37	14	도소매	협신전자	부산 부산진구	전자부품	45
7	도소매	정우상사	서울 종로구	시계 도소매	35	15	도소매	형제상회	서울 은평구	자동차부품 도소매	30
8	도소매	정읍낚시	전북 정읍	낚시, 등산용품 등	31	16	음식업	화성갈비	경남 마산	한우갈비, 갈비탕	42

정부가 향후 5년간 1300곳 선정을 목표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백년가게'가 초반부터 주무부처와 산하기관의 샅바싸움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음식점 등 소상공인 점포가 다산다사형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독일 등에 많은 '장수기업'을 적극 키우기 위해 '백년가게 육성방안'을 내놓고 첫 선정 작업까지 마쳤지만 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기관간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9일 관련기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날 '18년 첫 백년가게, 16개 우수 소상인 선정'이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다.

앞서 지난 6월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정책실장이 직접 나서 30년 넘게 장사한 소상공인을 백년가게로 육성하기 위해 올해 100곳, 향후 5년간 총 1300곳의 백년가게를 육성하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당시 관련 발표 장소도 50년째 가업을 이어가며 장사하고 있는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을 택해 상징성까지 더하는 등 적잖이 공을 들였다.

오래된 음식점이나 도소매 등 우수 소상공인을 발굴해 홍보, 마케팅, 금융 등을 적극 지원해 10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기관간 역할에 따라 정책 입안은 부처인 중기부가, 실행은 산하기관인 소진공이 각각 맡았다.

소진공이 지난 6월부터 접수된 업체를 중심으로 현장 평가와 평가위원회의 종합 평가 등을 거쳐 처음으로 선정한 '백년가게'엔 서울 을지로 노가리골목의 터줏대감인 '을지OB베어'를 비롯해 강원도 원주에서 부부가 32년째 운영하며 맛집이 된 '진미양념통닭' 등 16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외에도 서울 은평구 만석장(두부요리·업력 36년), 종로구 선천집(한정식·〃 47년), 대구 동구 스미센(민물장어구이·〃 34년), 충남 태안 학암식당(게국지·〃39년) 등 음식점을 비롯해 부산 협신전자(〃 45년), 대구 국제의료기(〃 32년), 전북 정읍 제일스포츠(〃 31년) 등 도소매점도 두루 포함됐다.

하지만 중기부는 오는 13일께 관련 자료를 추가로 배포하기로 했다.

소진공이 당초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가 마뜩지 않아 내용을 보강해 부처 차원에서 다시 홍보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중기부는 최초 자료를 낸 소진공엔 관련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홍보를 자제하는 등 '함구령'까지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중기부 관계자는 "소진공이 앞서 배포한 자료는 참고하지 말고 향후 (중기부에서)배포할 추가 자료를 (보도에)활용해 달라"고 전했다.

향후 5년까지 큰 그림을 그린 백년가게 사업이 '정책 홍보'를 놓고 기관간 줄다리기로 삐걱거리며 첫 걸음을 내딛은 것이다.

한편 중기부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30년 이상된 소상공인은 8만4364곳으로 전체의 2.7% 정도다. 이 가운데 도·소매업은 3만503곳이고, 경쟁이 더욱 치열한 음식점은 30년 이상된 곳이 전국에 고작 3637개 정도다. 30년 이상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음식점들은 경북(413곳), 경남(370곳), 전남(361곳), 부산(359곳), 서울(345곳)에 주로 많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소상공인업계 광화문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열어

소상공인업계가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에 항의하고,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국민 서명을 받기위해 서울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열기로했다. 이를 위해 소상공인연합회는 9일 서울 광화문에서 소상공인 119민원센터 개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갖고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 농어업인 등 경제 주체들의 입장이 존중되는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반드시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소상공인 119민원센터와 연합회 홈페이지, 소상공인생존권운동연대 인터넷 포털 카페 등에서 최저임금제도 개선 대국민 온라인 서명을 받기로 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에서 열린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중기부-롯데마트-대상 손잡고 R&D 기금조성

70억원 규모 민·관 공동 협약기금
중소기업의 기술개발비 75%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기업인 롯데마트, 중견기업인 아이즈비전 및 대상이 총 7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기술개발투자협약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 국산화를 모색하는 중소기업이 과제를 제안하면 이들에게 총 개발비의 75%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9일 중기부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따르면 롯데마트 15억원, 아이즈비전 12억원, 대상 4억원 등 기업들의 출연금에 중기부가 39억원을 매칭해 3년간 총 70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

롯데마트는 소비재 기업을 대상으로 '열린 상품 공모제'를 개최해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에 기금을 투자할 예정이다.

또 전국 유통망을 활용해 기술개발에 성공한 제품의 판로를 제공하고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 진출도 돕는다.

알뜰폰을 선도하는 중견기업인 아이즈비전은 암호화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과 함께 도청과 해킹공격을 방어하고 기술유출을 방지하는 보안 전문폰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대상은 식품제조업체로선 처음으로 기금 조성에 참여했다. 대상은 식품·조미료 제조업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종합조미료, 전분당 제조식품을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왼쪽부터)차승룡 연천미라클(U-15)축구단 총감독, 삼표 연천사업소 성정훈 소장, 김광철 연천군수, 이원식 연천군 축구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삼표그룹

연천군 유소년 축구단에 1000만원 후원

삼표그룹 아리스포츠컵 출천 구단

삼표그룹은 이달 15일 북한 평양에서 열리는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에 참가하는 연천군 유소년축구단에 후원금 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8일 밝혔다.

삼표가 후원한 지원금은 대회에 출전하는 유소년 축구단의 전지 훈련비, 유니폼 제작비, 기타 경비 등에 쓰일 예정이다.

'연천 미라클 U-15 축구단'은 올해 3월 창단된 연천군내 유일한 유소년 축구단이다. 현재 이원식 연천군축구협회장이 단장을 맡고 있으며 차승룡 총감독, 조성환 감독의 지휘 아래 13~14세 청소년 18명과 코칭스태프 5명 등 총 23명이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 우승을 목표로 구슬 땀을 흘리고 있다.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축구대회'는 남북체육교류협회와 북한 4·25체육단이 지난 2014년 남북간 스포츠 교류 활성화를 위해 만든 대회로 2015년 첫 개최를 시작으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했다.

올해엔 연천군과 강원도 각 1개팀, 북한 2팀, 중국,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호주 각 1개팀 총 6개국에서 8개팀이 참가할 예정이다.

/김승호 기자

에이스침대

'스트레스리스 신제품' 최상의 안락함 '아우라'

에이스침대는 명품 리클라이너 '스트레스리스(Stressless)' 신제품 '아우라(Aura·**사진**)'를 새로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스트레스리스는 리클라이너 종주국 노르웨이에서 100% 생산되는 제품으로 국내에선 에이스침대가 단독으로 수입 판매하고 있다.

스트레스리스는 사용자의 인체 곡선과 움직임에 맞춰 섬세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돼 최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제공한다. 똑바로 앉아 있을 때나 뒤로 기댄 상태에서도 완벽하게 신체를 지지해 장시간 독서나 TV 시청에도 편안한 활동이 가능하며 360° 회전기능과 자유롭게 조절 가능한 머리 받침까지 갖췄다.

/김승호 기자

서브원 장애인자회사 출범…일자리창출 앞장

장애인 표준사업장 '드림누리' 설립

서브원이 장애인 자회사를 출범,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9일 서브원에 따르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인 ㈜드림누리가 지난 4월 최종 설립 인가를 받은 후 6월엔 서울시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본격적인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출범했다. 앞서 서브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목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자는 취지에서 운영되고 있다.

드림누리는 총 23명의 근로자 중 17명이 장애인 근로자로, 이 가운데 10명은 중증장애인이다. 드림누리는 현재 서브원 본사인 강서사옥에서 메일센터 운영 및 건물내 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방문 고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서브원의 장애인 자회사인 ㈜드림누리 직원들이 서브원 강서사옥에서 우편물 분류 등 우편 업무를 보고 있다.

드림누리 황재모 대표는 "드림누리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에서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에게 튼튼한 자립 기반을 제공하고 이웃들과 함께 성장해 가는 나눔경영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